

시론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애썼던 날들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 주길, 눈빛 하나에 위로를 주길 기대하며 버렸다. 그 기대는 때로는 간절했고, 때로는 절박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인의 공간은 분명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고, 그 따뜻함은 찰나의 온기일 뿐, 내 삶의 추위를 녹이기에 부족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건. 세상이 차가운 바람으로 스칠 때, 가장 먼저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나'라는 진실, 작은 상처에도 울고 싶을 때, 누구보다 진하게 울어주고, 눈물의 이유를 다정히 묻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골짜기를, 내가 먼저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야 했다.

자신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며 알게 되었

바람을 견디는 나무

다. 흔들리는 나를 굳건히 지탱해 주는 건 외부의 구조물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 목소리는 늘 속삭인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하고 있어."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고 진하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가장 진실된 응원이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삶은 여전히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바라는 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의 편이다.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부드러운 위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다음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도,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며, 삶을 견디는 힘이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하다." 플라톤의 이 말처럼, 진정한 승리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시작이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매일 나와 대화한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 소편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고독을 피할 수 없는 본질로 보았지만, 나는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외로움이 아닌,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비하고 회복하는 시

간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나는 나를 지탱한다. 그 바람은 거센소록 뿌리는 위로보다 깊고 진하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가장 진실된 응원이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삶은 여전히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바라는 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의 편이다.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부드러운 위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다음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도,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며, 삶을 견디는 힘이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하다." 플라톤의 이 말처럼, 진정한 승리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시작이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매일 나와 대화한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 소편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고독을 피할 수 없는 본질로 보았지만, 나는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외로움이 아닌,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비하고 회복하는 시

社說

美 무역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 전남 안도감

어떻게든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막아야 했다. 식량 주권이다.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면서 농민들이 안도하고 있다.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 분야의 99.7%가 개방돼 있고 작년 무역적자는 80억달러(약 11조 원)에 달했다. 당초에 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가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농도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었다.

수출 규모에서 비슷한 일본에 비해 나름 선방했다고 하지만 통상 압력은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를 포함해 3천500억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5%에서 15%로 낮췄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산과 같은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전남의 전략 소재인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50%로 여전히 변동이 없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의 중심 실용의

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총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추으로써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전남도는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는 자동차·가전 등의 피해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을 수습하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보였고, 미국 측의 이해를 이끌어냈다. 농업인단체는 한숨을 돌렸다. 그치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은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세부 협의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2주 내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잘 준비해야 한다.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긴장을 늦추선 안 된다.

광주공장 재건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환영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재건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생한 화재로 2개월째 가동을 멈춘터라 차질 없이 실현,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피해가 없는 1공장 설비를 보완해 올해 안에 1일 6천본 생산 수준으로 우선 재개된다. 합평 빛그린산단에 조성되는 신공장은 1단계로 연 530만본 체계를 갖추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최종적으로 광주공장 부지 매각 시 1공장을 합평으로 이전하며 2단계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의 광주공장 가동 및 신공장 이전은 모든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전제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물론 시민단체도 전 직원의 고용과 생산량 유지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8월 중 금호타이어 측을 만나 공장 이전 계획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담 지원단도 구성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안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한달여 협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이다. 지역 공동체가 바라던 대로 근로자

고용 보장, 국내 생산 물량 유지, 광주공장의 합평 이전이 담겼다. 향후 광주시의 협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합평 이전을 위한 광주공장 용도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대 주인 산업은행의 관심과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당연히 부지 매각 비용에 대해선 국내 공장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뒤야 한다. 특히 갑작스런 재난에 고통받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해사 화재 원인 분석 등의 장기화에 따라 먼저 자체적으로 보상 절차에 착수한 점은 고무적이다. 광주 광산구와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에 유념해야 하겠다.

대강의 밑그림이 나왔다. 앞으로 재건 로드맵이 순탄하게 이뤄지려면 당사자들이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목표로 한 결과 도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 야 한다. 광주 대표 제조업체다. 금호타이어가 계속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김종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이었던 5월28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와는 반대기조라는 데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2023년 기준 146개국 가운데 105위로 OECD 최하위권이다. 성별임금격차는 31%로 OECD 평균의 세 배 이상 높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고(여성 국회의원 19%) 내각이나 고위공직에서의 여성 비중도 매우 낮다. 출생률은 또 어쩔 수 없이 해를 기점으로 출생이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을 밑돈다. 국민권정부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대가 부여한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성들은 국민권정부부에 세 가지들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환영하며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과 여성노동정책 강화 그리고 성평등한 저출생 대책 마련이다. 길거리 폭행, 불법촬영, 교제폭력과 살인,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여성혐오 범죄가 끊임없이 뉴스에 올라오는 현실에서 젠더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개편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와 국가기관이나 사업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양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필수교과로 채택해서 성평등 교육과 디지털·미디어 리터라시 교육을 해주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높은 학력수준을 고려할 때 남녀 간 임금격차는 지나치게 크다. 2024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 근로자(2만8천734원)의 70% 수준이다. 여성고용률 또한 OECD 평균(2023년 63.4%)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육아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다.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은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높은 학력수준과 능력을 갖춘 여성 인적자원의 낭비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생률이 1.0도 안되는 현실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가족만 고집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소멸로 간다. 비혼동거 가족, 비혼출산가족, 공동돌봄가족, 생활동

거가족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돼야 한다. 저출생대책도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느리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행정이 국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리드해 나가길 바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정책은 단연 으뜸이었다. 돌봄이 중요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효능감이 컸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돌봄 사업의 체계를 안정시키고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성평등가족부의 과제다. 아이돌봄 신청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단일화돼야 한다. 출생률이 1.0도 안 되는 나라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정업무를 단순화시켜 민원을 없애고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사 인건비 체계로 맞추는 것도 급선무다. 세일센터의 일자리상담사, 여성폭력예방상담소의 상담사, 아이돌봄기금의 인건비가 현실화 돼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열정페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성평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의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 전반에서의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와 행정부, 여성단체가 땀땀삼각을 이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탄생시키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지난달 14일자로 단행한 목포시 하반기 정기인사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명예퇴직 신청, 특정지역 인사, 회전문 인사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급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A 사무관이 지난달 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 사무관은 "8번이나 승진 서열에 들었으나 장애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드러

공감을 얻는 행정이 필요하다

냈다. A 사무관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3번이었으나 후순위가 승진하며 배제됐다. 4급 승진자 3명 중 1번과 2번은 승진했고 자신만 제외된 셈이다. 또 A 사무관을 사실상 승진 희망이 희박한 스마트정보과장으로 전보한 점도 논란이다.

목포시는 이번 승진 인사가 개인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업무성과와 보직의 역할 및 조직 기여도를 감안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내 안팎은 물론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성도의 목소리가 높다. 후순위 승진자를 두고 현 보직 6개월간의 역할과 조직 기여도 반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한 국장 출신은 "이번 인사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초보 인사"라고 혹평했다. 또 전직 시민단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대행 부시장이 목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 발표 전 간부 부인이 승진 인사 내용을 언급하고 다녔다는 풍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감은 진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진실보다 공감이 우선한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공평, 공정하게 사용돼야 한다. 국민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카시 광장

바람의 노래

김성룡

모바일 모델링*
일 천도 열정으로 단련한
점도의 선율

온종일 소음으로
지친 귀를 씻는다
* mobile : 경쾌하게 연주하라는 음악용어, 이태리어

※시작노트
막내의 책상 앞 모빌을
문앞에 설치했다
나가고 들때마다
영롱한 리듬을 들려준다
일 천도의 잉글볼로 빛은
오르골 선율
무더위와 소음으로
지친 심신을 다독여 준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0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